

해경 서부정비창 등 21개 국가기관 전남으로

도, TF발족... 선박해양플랜트 연구 분원 등 유치도

인구 유입·고용 창출·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전남도가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선제 대응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해경 서부정비창 등 국가기관 21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인구 유입, 고용 창출, 연구개발(R&D)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국가기관 유치를 역량을 쏟고 있다.

전남도가 유치를 추진하는 국가기관(분원 포함)은 모두 5개 분야, 21개에 달한다. 조선·해양 분야가 8개로 가장 많다. 해경

서부정비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남 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 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분원,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치유 국립스포츠재활원, 국립정책연구원, 국립바다환경오염원 연구원 등이다.

해당 기관을 지역으로 유치하면 섬·갯벌·해안선 등 전국 1위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잠재한 조선·기자재 산업의 업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건 분야에서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심혈관센터, 백신제품화지원센터 등 3곳을 유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영광 한빛원전이 있고 중국 원전 지역과 마주하는 서남권 지역의 특수성을 내세워 반드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국립김산업연구소, 국립농산업지능경영지원센터, 국립수산기자재진흥원, 소금산업진흥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꼽힌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국립바독박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국립순천민속박물관, 민화박물관, 체육인교육훈련센터 등 5개 기관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 분야의 유치 대상 기관은 국립소방박물관이다.

전남도는 대상 기관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또 다음달 6일 대상 기관별 추진 상황 분석, 부처 동향 파악, 대응 계획 등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전체 대상 기관 중 8곳이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법령 제·개정 등 사전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도 공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유치는 지역 미래가 달린 현안인 만큼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청년 일자리 디딤돌

청년드림사업 신청하세요

상반기 참여 3기 300명 모집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이 2018년 지원을 시작한다.

광주청년 드림사업은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일자리 디딤돌로 올해 상반기에 참여할 3기 300명을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으로 나눈 5개 유형에서 올해는 청년창업기업형을 추가해 6개 유형으로 운영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광주청년드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3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직무에 대한 현장 상담을 거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한다.

현장 상담을 마친 후 청년과 사업장을 매칭해 3월 19일부터 4개월 간 직무 현장에 들어가 일을 경험하게 된다.

올해는 지원이 끝난 후에도 안정된 자립으로 이어가는 후속 관리와 지원연계를 확대하고, 청년친화적인 기업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신청은 광주청년드림 홈페이지(www.gj3dreams.modoo.at) 신청란에 하고,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http://pf.kakao.com) '광주청년드림'으로 검색해서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설맞이 서화 퍼포먼스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증심지구 잔디광장에서 열린 '설맞이 행복나눔 행사'에서 우석 박신근 작가가 대형 서화를 그리고 있다. 무등산공원사무소가 설 연휴를 맞아 개최한 이날 행사는 대형 시·서화 퍼포먼스, 새해 소망 및 가훈 쓰기, 무등산 시 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신안 흑산공항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세번째 제출

3월 국립공원위 심의 통과 관건

2차래 보류됐던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 재보완을 거쳐 최근 환경부에 3번째 제출됐다.

18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서를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12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토부 재보완서에 대한 국립공원위 심의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1월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국립공원위에 제출했지만 심의에서 '철새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7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국립공원위는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라'며 재보완을 요구했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돼 섬 주민과 관광객 통행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흑산권역 주민들은 흑산공항 조지 착공 청원서에서 섬 주민들의 응급구조와 교통 불편 해소, 서남해 영도수호 및 자원 관리, 관광객 증가 지역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금호건설은 흑산공항 건설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재심의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관용차량 22대 취약계층과 공유

무료 대여 등 공유재산 개방

광주시가 보유한 관용차량 22대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 대여하는 등 공유재산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용차량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유에 참여하는 단체·기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유장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소유한 공간·물품과 지식·정보 등 9개 분야 2221개 자원을 발굴, DB로 구축했다. 더불어 길 안내 사진, 전화번호 등의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공유광주' 포털사이트(www.sharegi.kr)와 앱을 운영하고 있다.

재능기부를 받아 지자체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지식공유 플랫폼인 '아리바다' 포털사이트에 인문, 교양, 안권, 석학인문 등 186편의 강의 동영상도 제공

하고 있다. 아리바다는 총 열람횟수 21만회, 하루 평균 200회 등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혁신도시 내 환전 KDN,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등 전남 지자체 등에도 지식 공유 협약을 추진해 다양한 강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시 소유 차량 중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 22대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 대여할 예정이다.

시 공유차량은 만 26세 이상으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특별법상 위법 없이 운전 가능해야 한다. 단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공유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기업을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행복주택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키로

저출산 대책과 연계 추진

광주시에 현재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을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14개 단지 4591세대의 행복주택이 조성중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전에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협의하는 내용의 '광주형 행복주택' 모델을 시행한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급면적과 평면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협의단계에서 아이 돌봄을 위한 투룸형 평면계획을 권장하기로 했

다. 또 ▲공동육아 등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 공간 확보 여부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여부 ▲어린이 등하교(원)을 위한 버스 스테이션 설치 등 특화된 계획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저출산 대응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비중이 선호하는 유형의 평면·면적과 공급비율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안내한다.

시는 또 주거대책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저출산 대응 주거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확대

1월부터 50% 지원

광주시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인 LH공사, 광주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하고 10월부터 일부 단지에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광주지역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 입주자 1만5082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한다.

사업은 별도의 개별 신청을 받지 않고, 광주시가 직접 공공임대주택 관리주

체(LH공사,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12월까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관리비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를 감감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주거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용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이사항역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713-중-83321호

자켓을 입고 벗기가 불편한가요?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중점 치료 비수술적 주사 치료 및 관절내시경 시술은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

이 문